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구조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onsumption Expenditure Condition of Elderly Persons with and without Physical Disabilities by Social Economic Statu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김혜경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Hye-Gyong Kim(ghk111@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구조를 비교분석하여 장애로 인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자료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T-test, ANOVA,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학력 및 총생활비 지출금액에서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게 나타나 장애로 인한 상대적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사회활동 및 친교활동 등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 항목과 경제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 부담금, 피복신발, 외식 등의 지출보다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정식비와 주거관리비에서의 지출구성비가 높게 나타났다.

■ 중심어 : | 지체장애 | 소비지출구조 | 경제사회적 지위 | 가처분소득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consumption expenditure condition of elderly persons with and without physical disabilities by social economic statu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o compare the results of those two groups for making an offer the basic materials to provide political support for elderly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collected data was enforced through T-test, ANOVA and Crosstabs with SPSS 19.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group with disabilities has presumed to be in relative poverty given that disposable income, academic career and total living expenses showed lower than the other group. Second, the component ratios of domestic foods and housing expenses of disabled group showed higher but those of specific spending items of expenditure such as social activities, reserving fund of social security for economic safety net, clothing and eating out expenses showed lower than the other group.

■ keyword : | Physical Disabilities | Consumption Expenditure Condition | Social Economic Status | Disposal Income |

I. 서론

우리나라 지체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과 경제적 빈곤에 처해있고, 이와 함께 사회적 지위까지 동반 하락됨으로써 심리적 차별감을 가지게 된다. 특히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와 노령으로 중복적 취약계층에 해당되어 건강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복지적 지원이 절실하다. 복지를 욕구의 충족이라고 볼 때 개인이나 가구의 다양한 욕구는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충족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복지의 척도로 선호되고 있으며[1], 가계의 소비지출을 통해 한국의 복지체계를 분석하고[2], 소득의 누락 등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집단에게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3].

장애는 신체적 기능의 제한이나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의 제약을 가져와 취업,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4], 이것은 결국 사회경제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연령대가 비슷할지라도 신체적 장애적 특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더우기 노인과 같이 소득의 급속한 감소를 겪는 집단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소득보다는 소비가 이들의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더 좋은 지표라고 하였다[5]. 따라서 적절하고 효과적인 경제적 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체장애를 지닌 중노년기 연령층의 소비지출구조분석을 통하여 사용가능한 일정소득을 어떤 용도 및 활동에 얼마만큼의 지출을 하고, 생활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출항목별 비율이 같은 연령층의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함으로써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주요활동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생계 및 사회활동의 불평등적 요소를 파악하는 연구는 경제적 소득차원 이전에 생활전반에 걸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의 소비지출 규모 및 방식을 분석한 선행연구

자료는 매우 미미하였고 특히 비장애인과 비교연구 자료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같은 연령층의 비장애인과 비교함으로써 장애적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를 비장애인과 비교분석하여, 중노년기 장애인의 실생활에서의 복지지원 및 아직 중노년기에 이르지 않은 50세미만의 지체장애인들의 향후소비지출 상황을 예측하여 보다 효율적인 노후복지지원 방안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지체장애인 현황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수는 2005년 1,777천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1년에 2,519천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2월말 기준 2,494,460명이다. 현재 15개의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고 있지만 지체장애인은 전체 등록장애인 중 가장 많은 약 52%인 1,295,608명으로 남성이 749,259명이고 여성은 546,349명이다 또한 등록지체장애인 가운데 50세이상 중노년기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인의 수는 총1,021,547명이며, 남성이 536,671명, 여성이 484,876명으로서, 등록 지체장애인수 전체의 약79%에 달한다[6]. 또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재가 지체장애인의 출현율을 지체장애가 있는 모든 사례건수로 집계하였을 경우, 인구 1천명당 28.17건으로서 이를 전국 일반인구에 적용하면 재가 지체장애 인구는 1,373,7천명으로 추정되어 등록지체장애인의 수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령이 증가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60대에서는 인구 1천명당 148.61건, 70대 연령대에서는 237.70건으로 가장 높은 출현율을 나타냄으로써[표 1], 평균수명의 연장과 인구고령화에 따라 지체장애 출현율도 80세 이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의 특징을 나타낸다[7].

표 1. 성별·연령별 지체장애 출현율(단위:1/1,000,건)

구분	남성	여성	전체
10세 미만	0.17	-	0.10
10대	2.14	1.56	1.88
20대	7.01	2.93	5.05
30대	30.77	8.20	19.63
40대	63.76	18.50	41.48
50대	125.18	51.10	88.16
60대	168.12	130.43	148.61
70대	214.33	254.21	237.70
80대 이상	100.71	93.20	95.46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2.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개념

본 연구에서는 중노년기의 연령대를 정함에 있어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 고령자의 연령을 '55세 이상인 자',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 자'로 정의함을 근거로 하여,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은 '50세 이상의 지체장애를 지닌 자'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8]. 지체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지체장애인의 기준으로는, 첫째로,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두 번째 기준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세 번째 기준은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네 번째 기준은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다섯 번째 기준은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여섯 번째 기준은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 기준으로는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9].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체장애인의

장애부위는 상지, 하지, 척추로 구분하여 볼 때 하지장애가 46.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척추부위로 30.7%, 그 다음이 상지 22.6%인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실태조사결과에 비해 하지의 장애는 동일하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척추의 경우는 약간 증가하였으며 상지 부위는 약간 감소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로서는 여성의 경우 하지양측이 좋지 않은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상지한쪽과 하지 한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장애형태를 절단, 마비, 관절장애, 변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는 관절장애가 6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절단 13.8%, 마비 13.7%, 변형 6.3%의 순이며, [표 2]과 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관절부위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가장 많다고 보았다[7].

표 2. 지체장애의 장애형태 (단위:%, 명)

구분	남성	여성	전체
절단	20.4	5.2	13.8
마비	15.3	11.7	13.7
관절	57.6	77.2	66.1
변형	6.7	5.8	6.3
계	100.0	100.0	100.0
전국추정수	781,099	592,638	1,373,737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3. 중노년기 소비지출구조

노인가구의 소비지출구조 관련한 연구들 가운데, 가구주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와 그 미만인 가계간의 소비비목별 지출규모와 비율의 차이 및 그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60세이상 가구주의 경우 식료품비와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비 등의 비중이 높았고 주거비와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비중이 낮았다[10].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가구 소비성향의 차이로 나타나는데[11],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불평등이 심화된다고 하였으며, 학력의 차이에 따른 노인가구의 빈곤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동일 소득분위 내에서 소비빈곤이 저학력 노인 가구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저소득 노인가구와 고소득 노인가구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 노인저소

득 가계와 고소득 가계의 총 소비지출금액과 각 비목별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을 비교하였는데, 총 소비지출을 포함하여 모든 비목에서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이 노인저소득 가계의 경우는 634,000원이고 노인고소득 가계는 그의 2배가 넘는 1,335,000원의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의 비목별 구성비에서는 저소득 노인가계의 경우 식료품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긴 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비수준이 줄어들었으며, 가구주의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비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소득가계에만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로는 가구원수와 월 소득으로서, 저소득가계에는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총지출금액이 월 소득을 초과하는 상태여서 소득변화에 따라 소비액을 조정할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12].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를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 취업상태, 건강상태, 가구유형, 주택점유형태, 거주 지역, 가구의 소득, 빈곤률 등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여건을 노인가구의 소비지출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분석하였으며[13], 가계소득이 달라짐에 따라 가계가 선택하게 되는 소비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가계에 주어진 소득을 소비지출 비목들에 대한 배분 정도를 분석하여 가구의 소비를 공통의 소비유형으로 분류하는 연구들이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국내의 연구는 드물다고 보았다[14].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 비교에 관련한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인데, 그 가운데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비항목별 비중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 장애인가구에서는 생활 필수재 항목의 지출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가구는 외식비와 사교육비, 기타소비지출(교제비, 친목비 등)의 항목에서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우 소비지출항목 가운데 보건의료비 구성비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16].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대상의 선행연구의 결과 및 함의를 배경으로 하여 장애와 노화로 이중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소비지출구조에 대하여 지출항목별 구성비 및 규모를 파악하고 비장애인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장애와 노화로 중복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50세 이상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월평균 소비지출금액의 항목별 지출비용 및 구성비의 차이 분석 및 비장애인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분석 자료는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포함한 2015년도 제10차 한국복지패널조사의 기초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시점에 만50세 이상이면서 연구에 필요한 설문항목에 성실히 응답한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석대상자로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지체장애인 676명과 비장애인 6,467명으로 총 7,143명의 케이스를 SPSS 19.0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2.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3.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4.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구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장애유무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의 구간에 속하는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빈도를 비교하고, 두 집단의 분포의 차이가 유의한지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포함된 변수로는 사회경제적 변수로서 학력, 근로직위,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및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를 포함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각 소비지출 항목이 소비지출결정요인으로서 유의적인 관계가 도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17],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성별과 연령, 소득수준 등이 주로 논의되어왔으며[18][19], 가족구성원 및 동반자의 수 또한 지출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20][21],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대, 배우자유무, 가구원수에 거주지역을 포함시켰고 장애적 특성으로는 장애정도를 포함시켰고, 소득수준 변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포함시켰다[표 3].

표 3. 변수 구성과 내용

구분	변수	변수 내용
사회경제적 지위	학력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교이상=5
	경제활동상태	취업=1 비취업=2
	연간 가처분 소득	1천5백만원미만=1 1천5백만원이상3천만원미만=2 3천만원이상4천5백만원미만=3 4천5백만원이상6천만원미만=4 6천만원이상=5
	주택가격 및 전세 보증금	5천만원미만=1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2 1억5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미만=3 2억5천만원이상 3억5천만원미만=4 3억5천만원이상=5
	월간 총생활비	100만원미만=1 100만원이상200만원미만=2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3 300만원이상400만원미만=4 400만원이상=5
	성별	남성=1 여성=2
인구 사회학적 특성	연령대	50대=1 60대=2 70대이상=3
	배우자 유무	배우자없음=0 배우자있음=1
	가구원수	1명=1 2명=2 3명=3 4명이상=4
거주지역	서울	수도권(인천/경기)=2 부산/경남/울산=3 대구/경북=4 대전/충남=5 강원/충북=6 광주/전라/제주도=7

다음 단계에서는 소비지출구조의 비교분석을 위해

제10차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 자료에 따른 10개 대분류와 21개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는 소비지출 항목들을 [22] 지출내용의 특성에 맞게 18개 항목들로 재구성하였으며[표4], 세부지출항목마다 지출금액의 평균값 및 월간 총 생활비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구하여 T-검정 분석을 통해 장애유무에 따른 각 소비지출항목의 평균지출금액과 평균구성비를 비교분석하였고,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마지막 단계로,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구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유무에 따른 일원배치분산분석과 T-검정 분석을 시행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 소비지출 세부 항목

항목	포함 내용
가정식비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제사비용 등
외식비	외식비, 학교급식비, 직장중식비, 밖에서의무료식사비
주류담배비	주류, 담배 비용
월세	계약한 월세액, 보증금 제외한 월세, 월평균 지대 등
주거관리비	월평균 주거관리비 및 수선비
광열수도비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등)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가구, 가정용 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비용, 가정용품대여료, 치료목적 아닌 바우처(노인돌봄비, 장애인활동보조) 이용료 등.
교육비	등록금, 학원비, 보육료, 문방구비, 학습교재비, 유학비, 수 학여행비, 독서실비용, 학습바우처 등.
의류 신발비	의류, 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보건 의료비	입원비, 진료비, 수술비, 약값, 산후조리비, 간병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비, 보장구, 치료용바우처 이용료 등.
교양 오락비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 (TV, PC, 유선방송, 피아노, 등산용품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일반인의 어학학습비, 단체 관광비, 비디오 대여비, 애완동물, 화분 구입비, 수신료, 아동용자전거 등
교통비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보험료, 대리운전비, 성인용자전거 등.
통신비	전화, 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등
기타 소비 지출	이미용 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 경조비, 교체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비용, 보장성보험료(자축성보험 제외), 관혼상비, 용돈 등.
사적 이전비	비동거 가구원 및 친지 등에게 송금한 금액. 현물 포함. 본인명의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 포함
세금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환경개선부담금, 취득세 등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법인세 등 사업용도 제외)
사회보장 부담금	국민연금(공무원, 사립교원, 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사보험료(암보험 등) 제외
이자 및 기타지출	이자지출금 및 농축산어업가구의 자가소비지출금

표 5.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적 특성 비교(단위:명,%)

변수	구분	전체(7,143)		지체장애인(676)		비장애인(6,467)		df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력	무학	1,102	15.4	136	20.1	966	14.9	4	69.155***
	초등학교	2,464	34.5	295	43.6	2,169	33.5		
	중학교	1,300	18.2	117	17.3	1,183	18.3		
	고등학교	1,622	22.7	97	14.3	1,525	23.6		
	대학교이상	575	8.0	31	4.6	624	9.6		
경제활동 상태	취업	2,973	41.6	191	29.1	2,776	42.9	1	47.855***
	비취업	4,170	58.4	479	70.9	3,691	57.1		
연간 가처분 소득	1천5백만원미만	2,576	36.1	318	47.0	2,258	34.9	4	64.032***
	1천5백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975	27.6	200	29.6	1,775	27.4		
	3천만원이상 4천5백만원미만	1,092	15.3	77	11.4	1,015	15.7		
	4천5백만원이상 6천만원미만	605	8.5	40	5.9	565	8.7		
	6천만원이상	895	12.5	41	6.1	854	13.2		
주택 가격 및 전세 보증금	5천만원미만	2,047	32.7	266	46.0	1,781	31.4	4	58.663***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2,103	33.6	175	30.3	1,928	34.0		
	1억5천만원이상 2억5천만원미만	1,057	16.9	57	9.9	1,000	17.6		
	2억5천만원이상 3억5천만원미만	446	7.1	37	6.4	409	7.2		
	3억5천만원이상	599	9.6	43	7.4	556	9.8		
월간 총 생활비	100만원미만	1,872	26.2	223	33.0	1,649	25.5	4	65.670***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119	29.7	249	36.8	1,870	28.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240	17.4	101	14.9	1,139	17.6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667	9.3	37	5.5	630	9.7		
	400만원이상	1,245	17.4	66	9.8	1,179	18.2		

*p< .05 **p< .01 ***p< .001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분석인원은 총 6,252명임(무응답 891명:장애인98명, 비장애인793명)

표 6.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단위:명,%)

변수	구분	전체(7,143)		지체장애인(676)		비장애인(6,467)		df	x ²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793	39.1	291	43.0	2,502	38.7	1	4.883*
	여성	4,350	60.9	385	57.0	3,965	61.3		
연령대	50대	1,928	27.0	117	17.3	1,811	28.0	2	35.552***
	60대	1,871	26.2	202	29.9	1,669	25.8		
	70대이상	3,344	46.8	357	52.8	2,987	46.2		
가구원수	1명	1,616	22.6	186	27.5	1,430	22.1	3	27.550***
	2명	3,207	44.9	329	48.7	2,878	44.5		
	3명	1,223	17.1	87	12.9	1,136	17.6		
	4명이상	1,096	15.3	74	10.9	1,022	15.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2,393	33.5	249	36.8	2,144	33.2	1	3.723
	배우자 있음	4,750	66.5	427	63.2	4,323	66.8		
거주 지역	서울	1,009	14.1	95	14.1	914	14.1	6	10.972
	수도권(인천/경기)	1,327	18.6	122	18.0	1,205	18.6		
	부산/경남/울산	1,274	17.8	98	14.5	1,176	18.2		
	대구/경북	987	13.8	103	15.2	884	13.7		
	대전/충남	593	8.3	67	9.9	526	8.1		
	강원/충북	609	8.5	50	7.4	559	8.6		
	광주/전라/제주도	1,344	18.8	141	20.9	1,203	18.6		

*p< .05 **p< .01 ***p< .001
 가구원수 분석인원은 총 7,142명임(무응답 비장애인1명)

IV. 분석 결과

1.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

구사회학적 변수들을 교차분석을 통해 빈도와 비율을 비교하고 두 집단의 분포차이가 유의한지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표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표 7.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 항목별 월평균 지출금액 및 구성비(단위:만원, %)

소비지출항목	소비지출금액(단위:만원)			소비지출금액 구성비(단위:%)		
	지체장애인	비장애인	t값	지체장애인	비장애인	t값
가정식비	36.67	40.75	-5.164***	25.22	22.94	5.146***
외식비	11.10	15.42	-6.266***	5.04	5.66	-3.215**
주류담배비	2.85	3.10	-1.166	1.53	1.42	.923
월세	2.99	2.62	1.091	2.51	1.70	3.041**
주거관리비	5.03	6.21	-1.413	2.67	2.59	.340
광열수도비	12.15	13.18	-4.310***	9.15	8.03	5.37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82	5.39	-.936	2.79	2.25	2.273*
피복신발비	5.05	7.92	-9.098***	2.44	2.85	-4.994***
보건의료비	18.64	17.26	1.237	10.86	8.50	4.822***
교육및보육비	4.78	9.45	-5.554***	1.28	2.08	-4.010***
교양오락비	4.05	8.28	-10.281***	2.08	2.60	-4.845***
교통비	17.94	25.68	-4.195***	7.28	7.53	-.752
통신비	7.74	10.06	-7.881***	4.32	4.25	.767
기타소비지출	32.40	52.09	-11.035***	14.97	17.88	-7.067***
사적이전비	1.28	3.35	-4.927***	.30	.64	-3.731***
세금	4.61	8.78	-5.510***	1.43	1.98	-5.153***
사회보장부담금	5.92	11.14	-9.581***	2.12	3.00	-6.232***
이자및기타지출	7.38	10.75	-4.736***	4.04	4.13	-.272
총 지출금액	185.40	251.43	-	-	-	-

*p< .05 **p< .01 ***p< .001

채택한 사회경제적 지위적 특성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에서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변수의 경우, 지체장애인은 초등학교, 무학, 중학교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고 비장애인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의 순이었다. 경제활동상태 변수에서는 지체장애인의 비취업의 비율이 70.9%이고 비장애인은 57.1%로 나타나 지체장애인의 비취업상태가 더욱 심각하였으며, 연간가처분소득 변수에서는 3천만원미만 구간의 지체장애인이 76.6%로 비장애인의 62.3%보다 높고 3천만원이상 구간에서는 지체장애인이 23.4%, 비장애인은 37.6%로 비장애인보다 크게 낮아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주택담전세보증금 변수에서도 지체장애인은 1억5천만원미만 구간에서 76.3%로 비장애인의 65.4%보다 높고 1억5천만원이상 구간에서는 23.7%로 비장애인의 34.6%보다 낮고, 월간총생활비 변수에서도 역시 낮은 생활비 구간에서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더 높고, 높은 생활비 구간에서는 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에서는 연령대와 가구원수, 성별의 변수에서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의 경

우 지체장애인은 70대이상, 60대, 50대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비장애인은 70대이상, 50대, 60대 순이었으며, 배우자유무 및 거주지역 변수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소비지출 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 비교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두 집단의 월 가계 지출의 18개 항목들에 대한 월평균 지출금액과 월평균 총지출금액에 대한 구성비를 구하여 비교하였다(표 7). 지체장애인의 경우 총 지출금액 평균값은 185만4천 원, 비장애인은 251만4천3백원으로서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월 평균 66만300원을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지출 항목별 구성비(단위:%)를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정식비 항목이 25.2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소비지출(14.97%), 보건의료비(10.86%), 광열수도비(9.15%)의 순서로 나타났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정식비가 22.9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기타소비지출(17.88%), 보건의료비가(8.50%), 광열수도비(8.03%)로써 지출구성비가 높은 순서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동일했으나 구성비율의 크기에서 보면 가정식비와 보건의료비, 광열수도비 항목에

표 8.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비지출 구성비의 평균값 차이 검정

소비지출항목	F(t) / 지체장애인(676명)				
	학력	경제활동유무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
가정식비	14.503***	-8.704***	68.527***	6.122***	115.911***
외식비	4.295**	2.750**	19.306***	1.664	11.664***
주류담배비	1.020	1.339	.643	2.284	3.833**
월세	1.112	-2.619**	7.801***	25.709***	9.313***
주거관리비	5.501	.071	4.001**	.726	.120
광열수도비	18.956***	-6.692***	76.338***	8.197***	124.651***
가구집기사용품비	1.750	-1.449	.451	.868	1.141
피복신발비	5.979***	-.604	11.340***	2.896*	6.345***
보건의료비	2.736*	-2.343*	5.712***	.862	3.754**
교육비보육비	4.695**	1.535	16.790***	1.054	17.734***
교양오락비	1.352	.916	2.827*	1.420	1.046
교통비	2.918*	4.056***	13.949***	2.130	22.563***
통신비	3.702**	-.223	.339	2.010	.877
기타소비지출	5.804***	2.735**	18.813***	8.510***	31.282***
사적이전비	4.825**	2.140*	8.756***	1.391	7.527***
세금	13.325***	3.204**	32.338***	39.362***	37.033***
사회보장부담금	13.239***	5.956***	43.031***	14.024***	37.000***
이자 및 기타지출	.857	4.010***	.848	1.982	3.105*
소비지출항목	F(t) / 비장애인(6,467명)				
	학력	경제활동유무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
가정식비	316.156***	-25.455***	1142.731***	77.905***	1913.782***
외식비	36.546***	14.995***	120.004***	1.650	74.200***
주류담배비	3.146*	1.256	5.391***	22.263***	13.313***
월세	3.498**	-3.230**	45.213***	323.486***	41.803***
주거관리비	1.471	-5.632***	17.501***	13.526***	6.866***
광열수도비	382.669***	-23.179***	1172.642***	97.887***	1866.010***
가구집기사용품비	4.456**	-3.570***	4.483**	3.662**	5.740***
피복신발비	44.761***	3.772***	96.496***	30.313***	56.181***
보건의료비	57.758***	-15.046***	84.678***	6.292***	62.518***
교육비보육비	92.149***	10.037***	193.620***	11.827***	266.511***
교양오락비	70.189***	1.585	61.905***	56.969***	68.315***
교통비	44.752***	12.006***	149.309***	15.292***	199.665***
통신비	7.892***	5.472***	4.665**	40.727***	13.352***
기타소비지출	119.215***	12.841***	243.449***	53.086***	337.770***
사적이전비	38.477***	7.680***	82.868***	8.044***	115.339***
세금	124.100***	8.607***	253.500***	250.939***	293.360***
사회보장부담금	194.445***	19.348***	529.382***	109.016***	481.612***
이자및기타지출	6.616***	8.170***	14.787***	1.516	16.122***

*p< .05 **p< .01 ***p< .001

서는 지체장애인의 구성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고, 기타소비지출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의 항목별 소비지출금액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18개 항목 가운데 2개 항목, 월세와 보건의료비 항목에서만 지체장애인의 지출금액이 비장애인보다 많았고, 나머지 16개 항목에서는 비장애인보다 적게 나타났다며, 특히 교양오락비와 기타소비지출, 사회보장부담금, 피복신발비 항목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지출금액이

비장애인보다 매우 유의미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구성비의 차이를 T-test한 결과, 전체 18개 항목 중 5개 항목(주류담배비, 주거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이자및기타지출)을 제외한 13개 항목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식비와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월세 항목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지출구성비가 비장애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으며, 기타소비지출과 사회보장부

표 9.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및 장애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구성비 평균값 차이 검정

소비지출항목	F(t) / 지체장애인(676명)					
	성별	연령대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거주지역	장애정도
가정식비	-3.850***	40.326***	3.666***	31.015***	.692*	.838
외식비	2.022*	18.879***	.552	19.201***	.707*	-.130
주류담배비	2.755**	15.379***	-1.548	7.226***	2.517*	-.120
월세	.824	.508*	4.475***	12.411***	1.839	-1.591
주거관리비	-.447	3.665*	.463	1.989	1.050	3.288**
광열수도비	-5.639***	41.290***	6.848***	54.021***	5.856***	1.017
가구집기가사용품비	-.945	3.002	3.278**	3.811*	.804	-2.923**
피복신발비	-.278	2.481	-2.077*	8.724***	1.715	.459
보건의료비	-3.423**	26.263***	-1.521	8.429***	.807	1.203
교육비보육비	2.540*	9.520***	.337	55.809***	.699	-1.210
교양오락비	-1.781	.917	.869	.777	1.098	.572
교통비	4.126***	16.589***	-5.080***	16.700***	1.893	.559
통신비	1.857	16.158***	-.287	16.710***	1.337	.189
기타소비지출	2.347*	16.870***	-2.660**	12.525***	1.500	-.272
사적이전비	1.552	7.866***	-.713	8.635***	.519	.682
세금	2.546*	11.037***	-7.452***	13.093***	2.523*	1.674
사회보장부담금	4.872***	34.111***	-4.464***	51.803***	1.726	-.802
이자및기타지출	-.231	1.892	-3.875***	4.890**	2.461*	3.124**
소비지출항목	F(t) / 비장애인(6,467명)					
	성별	연령대	배우자유무	가구원수	거주지역	
가정식비	-11.079***	1031.314***	17.624***	599.177***	19.068***	
외식비	4.274***	210.317***	2.214*	108.289***	12.505***	
주류담배비	8.502***	21.175***	-1.912	16.386***	3.966**	
월세	-1.809	.966	11.922***	83.441***	13.227***	
주거관리비	-2.602*	24.027***	2.150*	28.360***	1.380	
광열수도비	-13.896***	930.318***	25.138***	840.703***	46.58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2.578*	11.840***	4.554***	10.512***	1.087	
피복신발비	1.444	56.463***	-4.385***	42.152***	7.175***	
보건의료비	-3.395**	251.953***	-1.050	94.468***	5.697***	
교육비보육비	6.174***	357.659***	-4.844***	828.666***	8.289***	
교양오락비	1.919	48.054***	-4.731***	3.065*	8.878***	
교통비	5.627***	211.490***	-12.433***	154.140***	13.629***	
통신비	1.155	123.874***	.620	163.330***	12.544***	
기타소비지출	3.797***	289.499***	-9.900***	132.135***	16.513***	
사적이전비	4.447***	25.381***	-8.544***	179.262***	5.572***	
세금	7.066***	135.101***	-17.988***	103.556***	9.865***	
사회보장부담금	8.031***	729.177***	-15.054***	516.251***	32.447***	
이자및기타지출	.731	12.651***	-6.744***	62.962***	13.177***	

*p<.05 **p<.01 ***p<.001

담금을 비롯하여 세금,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사적이전비, 외식비 등에서는 비장애인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낮은 지출구성비를 나타냈다.

3.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구조의 차이 분석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검증한 결과는 [표

8][표 9]와 같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 설정한 5가지 변수(학력, 경제활동상태,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 가운데, 학력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는 광열수도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가정식비, 기타소비지출, 피복신발비 항목에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경제활동상태(취업, 비취업)에 따른 소비지출구성비는 가정식비, 광열수도비, 사회보장부담금, 교통비, 이자및기타지출에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지출금액의 비율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간가처분소득과 세금, 광열수도비, 가정식비, 사회보장부담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의 지출구성비도 양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에서는 세금, 월세, 사회보장부담금, 기타소비지출, 광열수도비, 가정식비에 양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월간총생활비 또한 광열수도비, 가정식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기타소비지출 등에서 매우 유의미한 양(+)적인 차이를 가져온다.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학력과 경제활동유무,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의 5개 항목에서 그 결과가 유의미하였으며, 특히 연간가처분소득과 월간총생활비 변수에서는 18개 전 항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구성비 차이 검증결과에서, 성별 변수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월세,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통신비, 이자 및 기타지출을 제외한 13개 항목에서 유의미하였고, 배우자 유무 변수의 경우에는 두 집단 모두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광열수도비, 월세, 가정식비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출비율이 더 높고(+) 교통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에서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비보육비, 보장부담금, 광열수도비 항목에서 양(+)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라 교육비보육료, 광열수도비, 가정식비, 사회보장부담금이 양(+)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 연령대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부담금, 광열수도비,

가정식비 등의 항목에서 양(+)적인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였고 반면에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광열수도비, 외식비, 가정식비 세금 주류담배비, 이자및기타지출 항목에서 유의미하였고, 장애 정도에 따른 차이는 주거관리비와 이자및기타지출 항목에서 양적(+)으로 유의미하였고 가구집기가사용품비에서는 그 차이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비장애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광열수도비, 가정식비, 보건의료비 항목에서 지출비율이 높으며, 사회보장부담금과 세금을 비롯한 대부분 항목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지출구성비율이 유의미하게 높다. 가구원수

는 18개 전 항목에서 양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연령대 변수에서는 월세항목만 제외한 17개 항목에서 매우 양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배우자유무 변수에서는 광열수도비, 가정식비, 월세 항목에서 유배유자의 지출비율이 높고,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교통비 항목에서는 무배유자의 지출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변수도 주거관리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항목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양(+)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V. 결론 및 함의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 18가지 항목별로 소비지출금액과 총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을 구하여 비교분석한 결론과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로 채택한 학력과 경제활동상태,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 모든 변수에서 중노년기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소비의 수준이 조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인 가처분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 선행연구결과[23]에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가운데 연령대와 가구원수, 성별 변수에서는 두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배우자유무 및 거주지역 변수에서는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이 소득과 재산 등의 경제력뿐 아니라 학력과 경제활동상태에서도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부(-)적인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장애로 인한 상대적 빈곤상태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소득지원과 함께 근본적인 고용촉진 방안 마련을 통해 상대적 빈곤감 및 박탈감을 완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없는 통합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문제제기의 기초자료로서 본 논문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소비지출구조를 18개 세부항목별로 월평균 지출금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총지출금액 평균값에서 지체장애인의 경우 185만4천원, 비장애인은 251만4천3백원으로 66만3백원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18개 항목 가운데 5개항목만을 제외한 13개 항목에서 지체장애인의 지출금액이 적었고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소득과 재산에서의 차이가 소비지출규모로 연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각 집단 내에서 항목별 지출구성비를 비교하면 두 집단 모두 가정식비, 기타소비지출, 보건의료비 순서로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1인가구 대상의 선행연구에서 지출항목 중 식비, 광열비, 보건의료비에서 지출이 크고 피복비, 문화생활비, 교육보육비지출은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24]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의 항목별 지출구성비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즉, 가정식비와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월세 항목의 지출구성비는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았으며, 기타소비지출과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사적이전비, 외식비 등 나머지 대부분의 지출항목에서는 비장애인보다 낮은 지출구성비를 나타내었으며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평균소득이 낮은 편임과 동시에 장애유무에 따른 소득수준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빈곤층과 비빈곤층 및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비 패턴에 관해 분석한 연구[25][26]의 대상그룹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빈곤계층은 식비나 주거비와 같은 필수재 지배적인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비빈곤계층은 건강관리비 및 여가비와 같은 사치재의 지배적인 소비패턴을 갖는다는 결과[25]와 부합된다. 또한 장애인가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적자본 및 문화자본 영역의 소비에서의 지출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빈곤이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에 연속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고 한 선행연구[15]와도 유사한 결과로서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적은 소득으로 적은 소비지출을 하게 되어 사회활동 및 친교활동 등이 포함된 기타소비지출 항목과 경제적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사회보장부담

금, 피복신발, 외식 등의 지출보다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가정식비와 주거관리비에서 지출구성비율이 높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지원할 만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 및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구조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학력, 경제활동유무, 연간가처분소득, 주택가격 및 전세보증금, 월간총생활비 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채택한 모든 변수에서 소비지출구조 18개 세부 항목들 가운데 여러 항목에서 지출금액 구성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특히 연간가처분소득과 월간총생활비 변수에서는 18개 전 항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체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에 따라 소비지출 항목들에 지출하는 비율차이가 유의미한 항목수가 훨씬 적은 것은 장애로 인하여 소비할 수 있는 재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아울러 다양한 소비활동을 하지 못하는 차별적 인식과 제도 및 열악한 접근성의 환경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지체장애인의 경우 가구원수, 연령대 변수가 가정식비, 교육비보육비, 광열수도비, 사회보장부담금에서 크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역과 장애정도 변수는 주거관리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이자 및 기타지출 항목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반면,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가구원수 변수가 18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연령대 변수는 월세항목만 제외한 17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거주지역 변수는 주거관리비와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항목만 제외한 16개 항목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거주지역 변수에서의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비지출구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 및 생계형 지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은 소비의 모습이 그 가계가 충족하기를 원하는 욕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서[27] 중노년기 지체장애인의 소득지원 방안과 함께 중노년기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고용활성화 방안마련이 시급할 것이며 이를 위한 후

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1] 안은미, *가구소득 변화와 소비지출구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2] 김종건, “소비지출구조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성격, 미래한국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pp.162-236, 2007.
- [3] 여유진, *한국에서의 소비지출 불평등에 관한 연구 - 집합적 소비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4] 홍세희, 노연경,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일상생활 만족도 변화,” 제3회 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논문집, pp.333-348, 2011.
- [5] Meyer, Bruce D. and James X. Sullivan, “Consumption and income Poverty for Those 65 and over,” Harris school working paper series, 2007.
- [6] 등록장애인현황, 보건복지부, 2015(12).
- [7] *장애인실태조사 정책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8]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제2조, 법제처.
- [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법제처.
- [10] 성영애, 양세정,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5호, pp.103-117, 1997.
- [11] 정운영, 정세은, “저소득 노인가계와 고소득 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결정요인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호, pp.21-48, 2011.
- [12] 김학주,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4호, pp.141-161, 2006.
- [13] 백학영,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 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회논문지, 제30권, 제3호, pp.911-931, 2010.
- [14] 김경진, *빈곤층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15] 조정아, “장애인가구와 비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pp.297-309, 2011(4).
- [16] 김태완,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상태,” 보건복지포럼, pp.20-29, 2010(6).
- [17] 유창근, “인천한류관광콘서트 방문객의 소비지출패턴 및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8호, pp.399-410, 2012.
- [18] 이희찬, “축제참가자의 관광지출 결정요인: Tobit모형을 적용,” 관광학연구, 제26권, 제1호, pp.31-46, 2002.
- [19] 고동우, 부소영, “지역축제 관람자의 소비지출기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제2권, 제2호, pp.61-79, 2001.
- [20] J. Mak, J. Moncur, and D. Yonamine, “How or How Not to Measure Visitor Expenditur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16, No.1, pp.1-4, 1997.
- [21] M. Fish and D. Waggle, “Current Income versus Total Expenditure Measures in regression Models of Vacation and Pleasure Travel,”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5, No.2, pp.70-74, 1996.
- [22] *제10차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 [23] 이준구, 이창용, *경제학원론*, 법문사, 1997.
- [24] 김시월, 조향숙, “중고령 1인가구의 소비지출패턴과 삶의 만족도,”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8권, 제3호, pp.89-118, 2015.
- [25] Lucilla Tan, “Spending Patterns of Public-assisted Families,” Monthly Labor Review, pp.29-35, May. 2000.
- [26] 배미경,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결정 함수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9권, 제4호, pp.83-100, 1998.
- [27] 이승신, *가계경제학*, 학지사, 1996.

저 자 소 개

김 혜 경(Hye-Gyong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문학사)
- 2005년 8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
회복지학과(석사)
- 2013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사
회복지학과 박사과정수료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제도